

- ◆ [Focus] 美 1분기 GDP 발표 및 현지 반응
- ◆ [What's News]
  - (백악관) 설리반 안보 보좌관 국제경제 정책 관련 대담
  - (반도체) 상무부, 국가반도체기술센터(NSTC) 전략 보고서 공개
  - (규제) 한국산 Brass Rod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
  - (친환경) 에너지부, 탄소중립 관련 민간 투자 기회 보고서 발간
  - (규제) WTO, 한국산 세탁기 최종 승소 확정 판결
  - (301조) USTR, 스페셜 301조 대상국으로 벨라루스·불가리아 신규 등재
  - (통상일정) 제4차 IPEF 협상라운드 부산에서 개최
- 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[경제전망] 美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및 현지 반응

#### 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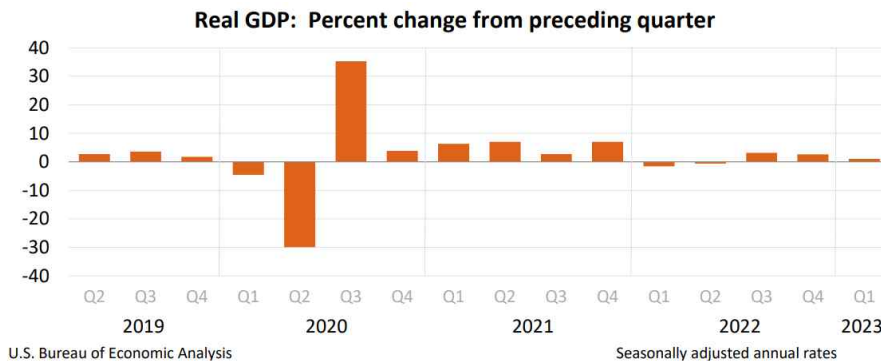
□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,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(4.27)

○ 1분기 GDP 성장률은 1.1%로 추정, 경제성장 속도 둔화 시사

-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으나, 기존 월스트리트저널(WSJ) 등 전문가 전망치(2.0%)를 크게 하회

\* 2022.3분기 및 4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3.2%, 2.6%로 성장폭이 크게 감소

<2019~2023 분기별 美 GDP 성장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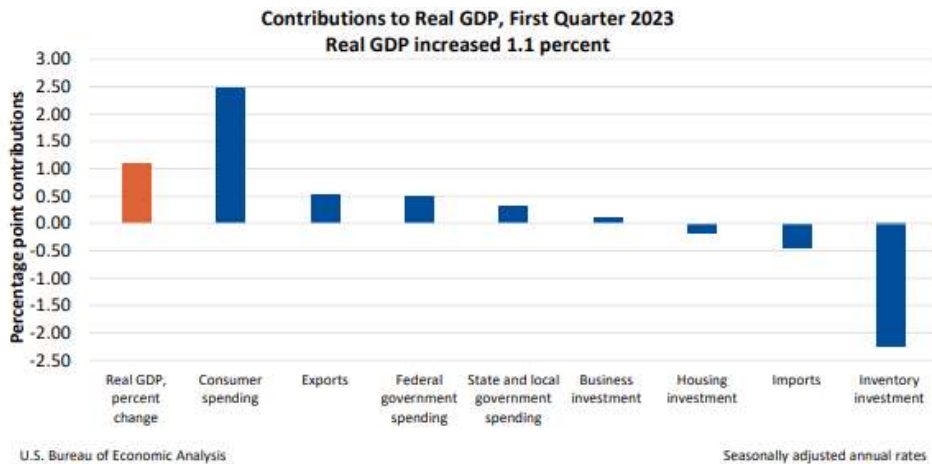


[출처 : 경제분석국(BEA)]

## 2. 주요 내용

- '23년 1분기 실질 GDP 구성항목 중 소비자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, 기업의 재고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, 소비자 지출로 인한 상승분 상쇄
  - 소비자 지출 항목(consumer spending)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모두 증가, 상품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 기록, 서비스에서는 의료 및 음식 서비스, 숙박업 중심으로 증가
  - \* 그 밖에도 수출,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출, 기업투자 부문도 증가
  - 재고 투자 부문(inventory investment)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으며, 주택 투자(housing investment), 수입(imports) 역시 감소

<2023년 1분기 항목별 실질 GDP 기여도>



[출처 : 경제분석국(BEA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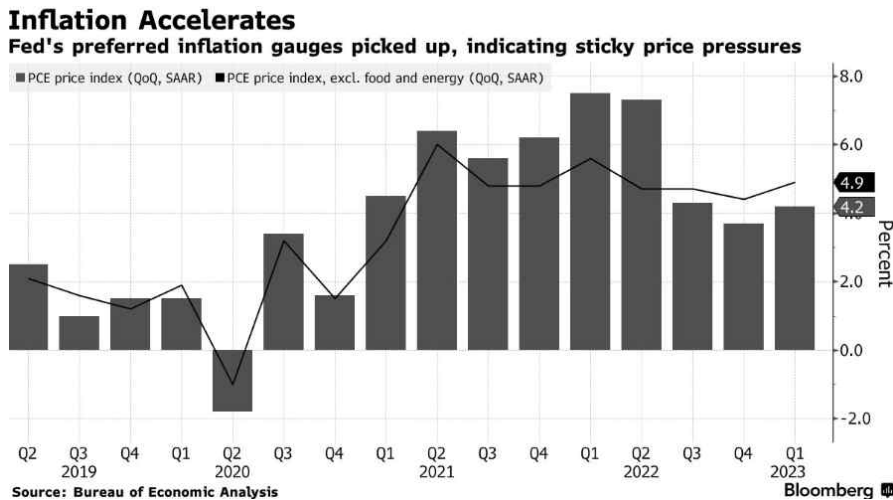
-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는 4.4%,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4.9%로 상승(직전분기 PCE 3.7%, 근원 PCE 4.4%)
  - 1분기 개인소비지출은 3.7%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4분기에는 1.0% 증가
-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된 실질 개인가처분소득(DPI)은 4분기에 5.0% 증가한 데 이어 1분기에도 8.0% 증가
  - 1분기 달러 DPI는 12.5% 증가(직전 분기 +8.9%)했는데 주로 임금 및 정부 사회 복지 혜택의 증가와 개인 세금의 감소를 반영했다고 발표

### 3. 현지 반응 및 전망

○ 1분기 GDP 경제성장 둔화 소식 잇따라 보도, 연내 경기 침체 전망

- 블룸버그 통신은 1분기 GDP가 연준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무게로 점차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계와 기업들이 투자·지출을 자제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
- 또한 인플레이션과 PCE 지수를 근거로, 연준이 다음 금리를 0.25%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관련된 현안을 변수로 지목

<2019~2023년 1분기 PCE 가격 지수 및 인플레이션 추이>



[출처 : 경제분석국(BEA), 블룸버그 인용]

-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인상 속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, 소비지출과 고용은 강했지만 거둬들인 금리인상에 따른 연말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
  - \* 1분기 월 평균 신규일자리는 345,000개로 노동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 중
- 워싱턴포스트(WP)는 최근 중견은행 두 곳(SVB 등)의 파산에 따른 은행발 경제 스트레스에 주목하고, 거둬들인 금리 인상과 불확실성이 사업주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도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BEA(4.27), WSJ(4.27), WP(4.27), Bloomberg(4.27), FT(4.27) 등

□ [백악관] 설리반 안보 보좌관 국제경제 정책 관련 담화

- (개요) 바이든 정부의 국제경제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브리핑
  - 제이크 설리번(Jake Sullivan) 안보 보좌관은 4월 27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바이든 정부 산업정책의 배경·목표·정책 방향을 설명
- 주요 내용
  - (배경) 바이든 정부 산업정책 추진의 배경과 도전 과제
    - (1) 美 산업 경쟁력 쇠락, (2) 지정학 갈등 고조, (3) 당면한 기후 위기, (4) 불공정 무역 발호 ⇒ ‘현대화된 산업정책’(Modern industrial policy) 시급
  - (목표) 중산층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제경제·산업 정책 추진
    - (1) 미국 경제·산업 역량 강화(Capacity), (2) 국내외 공급망 탄력성 제고(Resilience), (3) 포용적 성장(Inclusive) 등을 키워드로 제시
  - (방향)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추진 방향 제시
    - (1) 국내 산업·기술 경쟁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(반도체, 인프라, 친환경)
    - (2) 국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투자 확대 (한국, EU, 캐나다, 일본 등 언급)
    - (3) 21세기형 무역 협정 체결 (IPEF, GASSA 등 예시)
    - (4) 다자간 국제기구 개혁 (세계은행, WTO, 개도국 부채 해결 등)
- 질의응답 시 특이 발언
  - 국제 기술 협력에서 “Small Yard, High Fence” 원칙 거듭 강조
    - ⇒ 협력국 또는 타깃 기술의 범위는 좁히고, 규제 장벽은 높이겠다는 의사로 해석
  - 미국 산업정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방국 기업의 경제 피해는 부득이 감내해야 할 ‘방위비 분담’(burden-sharing)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브루킹스 연구소 행사(4.27)

## □ [반도체] 상무부, 국가반도체기술센터(NSTC) 전략 보고서 공개

- (개요) 상무부 산하 국립 기술 표준연구소(NIST), NSTC 전략 발표(4.25)
  - NSTC는 반도체·과학 법에 따라 신설된 민·관·학 컨소시엄으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 상용화의 구심점 역할 예정
- (상세) 보고서는 NSTC 운영 목표, 핵심 프로그램 및 투자계획 등 소개
  - (운영 목표) (1) 美 반도체 기술 지배력 연장, (2) 기술 상용화에 드는 시간·비용 절감, (3) 지속가능한 인재 생태계 조성
  - (참가자) 정부 부처, 국가 연구소, 산업·노동계 대표, 기업, 대학 등
    - \* 해외 기업 또는 연구소도 참여할 수 있으나, 예산은 미국 내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
  - (프로그램) (1) 장기적인 기술 선도를 위해 자체 연구 및 외부 R&D 활동 지원, (2) 반도체 생태계 자산(연구시설, 데이터 등)에 투자, (3) 전문 인력 개발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상술
- (향후 계획) 올해 말 NSTC 컨소시엄 구성 완료를 목표로 진행
  - 현재 NSTC 운영 이사회 구성을 결정하는 Selection Committee 위원 선임 진행(4.26 후보자 모집 공고) ⇒ 상무부 최종 운영 계획 수립 진행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NIST( <a href="#">4.25</a> )

## □ [규제] 한국산 Brass Rod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 청원 접수

- (제소자) American Brass Rod Fair Trade Coalition 외 2개 미국 기업(Mueller Brass Co., Wieland Chase LLC) 공동 제소
- (피소국) 한국 포함 총 6개 국가 대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
  - 반덤핑 : 한국, 브라질, 인도, 이스라엘, 멕시코, 남아공
  - 상계관세 : 한국, 인도, 이스라엘

- 품목 : 합금으로 만든 납, 저연 및 무연 고체 황동으로 단면적 외경이 0.25인치~12인치에 해당하는 제품
  - \* (HS 코드) 7407.21.9000, 7403.21.0000, 7407.21.1500, 7407.21.3000, 7407.21.5000, 7407.21.7000
- 제소 측 주장 덤핑 마진율 : 10.20~63.76%
  - \* [한국\(12.75%\)](#), 이스라엘(20%), 브라질(62.76%), 멕시코(63.76%), 남아공(27.99%), 인도(10.20%)
- (잠정 일정) 제소 측은 상무부가 5.17까지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
  -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(6.11) ⇒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(10.4) ⇒ 상무부 최종 판정(12.18) ⇒ ITC 산업피해 최종 판정('24.2.1.) 순 진행
    - \* 상계관세 조사 일정으로는,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(7.21) ⇒ 상무부 최종 판정(10.4) ⇒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(12.18) 예정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JD Supra( <a href="#">4.28</a> )

## □ [친환경] 에너지부, 탄소중립 관련 민간 투자 기회 보고서 발간

- 에너지부, 미국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관련 대규모 민간 투자 기회 전망
  - 미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포집, 저장 및 CO<sub>2</sub> 감축 규모를 연간 최대 18억 톤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추산
  -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탄소 감축 수준은 목표치의 1~5%에 불과하며, 2030년 까지 약 1,000억 달러 규모, 2050년까지는 6,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기회(massive investment opportunity)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
    - \* 미국 전역 태양광 커뮤니티 지원 및 가속화 행정명령(에너지부, 4.20) 등
  - 에너지부는 미국이 최근 IRA 입안 등으로 인한 정책 환경, 지리적 이점, 전문가 및 인력분포 등을 고려할 때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에 투자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

- 특히,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및 자금 조달은 민간 부문을 통해 구현될 전망이라며, 이후 규정, 세제 인센티브, 자금조달 등 관련 지원 정책 관련 과제 및 제언을 제시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백악관(23.4), 에너지부(4.20, 4.24), 폴리τικο(4.24)

## □ [규제] WTO, 한국산 세탁기 최종 승소 확정 판결

- WTO 분쟁해결기구(DSB)는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관련, 한국 정부의 승소를 확정하는 패널보고서 채택 발표(4.28)
  - 앞서 미국은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나,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
  - 미국 정부는 용량 10kg 이상 대형 세탁기의 경우 연간 120만대까지는 20%의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넘기면 50%가 넘는 세이프가드 시행
    - \* 세탁기 완성품 뿐 아니라 부품 역시 수입 물량이 5만개를 넘기면 50%의 관세
  - 2022년 2월, WTO는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을 내렸으며 이후 미국 측이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타진, 4.28일자로 최종 패널보고서 채택
  - 미국은 “이번 조치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통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과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된 사실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” 발표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Insidetrade(4.28), Korea Bizwire(4.28), Bloomberg(22.2.8)

□ **(301조) USTR, 스페셜 301조 대상국으로 벨라루스·불가리아 신규 등재**

- (개요) 미 무역대표부(USTR), '2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공개(4.26)
  - 이번 보고서는 중국, 러시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, 태국, 베트남 등 22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
  - \* 스페셜 301조 대상국을 '우선협상대상국,' '우선감시대상국,' '감시대상국' 등으로 분류
  - 벨라루스와 불가리아를 감시대상국에 추가 등재하였으며, 불가리아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련 비정기 점검을 '22년에 이어 시행할 예정

< 2023 스페셜 301조 대상국 목록 >

우선감시대상국	감시대상국
총 7개국 아르헨티나, 칠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베네수엘라	총 22개국(+2) 알제리, 바베이도스, 벨라루스, 볼리비아, 브라질, 불가리아, 캐나다, 콜롬비아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이집트, 과테말라, 멕시코, 파키스탄, 파라과이, 페루, 태국, 트리니다드 토바고, 튀르키예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

- \* 우크라이나('21년 우선감시대상국)는 러시아 사태로 '22년에 이어 조사 연기
- (상세) 중국의 지적권 제도와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
  - (중국) 특허법·저작권법 개정 등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속도가 “둔화”, 미중무역협상 조항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
  - (EU) 기존 농산물·식료품에 한정되었던 지리적 표시제를 공산품 등에 확장하는 것을 예의주시 중이며, 미국 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반대
  - (벨라루스) “적대국”의 지적권을 무시하고, 이들 대신 벨라루스 정부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하는 법안 통과로 감시대상국에 등재
  - (한국) 기존 의약품 가격 결정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우려에 더해 스트리밍 콘텐츠 무단 탈취가 성행하는 국가\*로 신규 언급
  - \* 캐나다, 인도, 한국, 멕시코, 러시아, 스위스, 우크라이나, UAE
- (반응) 미국음반산업협회·미국의류신발협회, USTR 보고서 환영 성명 발표
  - 미국의류신발협회는 방글라데시, 중국, EU의 감시대상 지정을 의견으로 제시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▪ 자료원	인사이드트레이드(4.26), USTR(4.26), 미국음반산업협회(4.27), 미국의류신발협회(4.26)



---

## □ (통상일정) 제4차 IPEF 협상라운드 부산에서 개최

---

- 현지 언론, 올해 말 부산에서 제4차 인도태평양경제체제(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) 협상 개최 소식 보도
  - 인사이드트레이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최할 제4차 IPEF 회담에서는 무역, 공급망, 청정경제,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안건 모두 협의할 전망
  - 제3차 협상 라운드는 5.8-15,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 외 IPEF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5월 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모일 예정
- ※ 세부 안건 및 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

---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InsideTrade( <a href="#">4.28</a> 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Wage Gains Pick Up as Fed Considers Rate Decision</a> (연준, 금리 인상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임금은 상승 기로)</p> <p>연초 임금상승률과 저번 달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책 결정권자들은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Fed says it must strengthen banking rules after SVB's collapse</a> (연준, 금융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)</p> <p>연준, SVB 사태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에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실책을 적시하며 규제와 감독 규정에 취약점이 있음을 시사.</p>
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Shares of First Republic Bank resumed their punishing slide as the bank's fate remains uncertain</a> (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, 다시 폭락)</p> <p>11개 은행의 3,000억 달러 규모의 예치 지원에도 불구하고, 최근 투자자 대상 보고서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예치금 인출을 보고, 3월초 주가 대비 약 95% 폭락</p>
CNN	<p><a href="#">First Republic stock plunges 50% as fears of failure mount</a> (은행 파산 우려 속,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 50% 급락)</p> <p>백악관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신규 구제책이 없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두 달 간 파산하는 세 번째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확산.</p>

\* 미국 동부시간 4월 28일 16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R&amp;D 지원 정책 방향</a>	2023.04월
US23-13	<a href="#">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4월
US23-12	<a href="#">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</a>	2023.04월
US23-11	<a href="#">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</a>	2023.03월
US23-10	<a href="#">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3월
US23-09	<a href="#">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</a>	2023.03월
US23-08	<a href="#">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7	<a href="#">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0 (2023.4.17)		
코인시-9 (2023.3.15)		